

한샘 떠난 최양하, 한샘이펙스 최대주주 '독자경영'

(사무용 가구)



한샘 보유 이펙스 지분 매입
51% 이상 확보, 경영권 가져

'업계 40년' 경력 수완 발휘 관심
퍼시스 등과 경쟁도 관전포인트



최양하 한샘 전 회장

최양하 한샘 전 회장이 한샘 계열사인 한샘이펙스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며 단독 경영에 나선다.

한샘이 갖고 있던 한샘이펙스 주식을 최양하 전 회장이 매입, 1대주주가 되면서다.

지난해 말 최 전 회장이 25년간의 최고경영자(CEO) 활동을 마치고 한샘을 은퇴할 당시 업계에선 자신이 2대 주주로 있는 한샘이펙스의 경영권을 확보해 독자적으로 가구회사 운영을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1978년 설립된 한샘이펙스는 사무용 가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다. 최 전 회장이 한샘에서 독립, 한샘이펙스를 이

끌게 됨에 따라 같은 사무가구 전문회사인 퍼시스 등과 경쟁에 본격 돌입할 전망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한샘이 보유하고 있던 한샘이펙스 지분을 최근 매입, 경영권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공시는 오는 4월에 나갈 예정이다

한샘은 기존에 한샘이펙스 지분 38%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최 전 회장은 한샘에 이어 한샘이펙스의 지분 25.6%

<한샘이펙스 현황>

설립	1978년 8월
임직원 수	110명
자본금	300억원
매출액	1408억(2019년)

를 갖고 있었다.

한샘 창업주이자 오너인 조창걸 명예회장의 장녀 조은영씨도 한샘이펙스 지분 22%를 보유하고 있다. 조 명예회장 자신도 한샘이펙스 지분 3.1%를 갖고 있다. 또 현 강승수 한샘 회장도 5.3%를 보유하고 있다.

한샘 관계자는 "최 전 회장께서 한샘이펙스의 지분 51% 이상을 확보해 대주주가 된 것은 맞다"고 전했다.

한샘이펙스는 2019년 당시 1408억원의 매출(연결기준)을 기록했다. 사무가구 외에 주방 상판에 주로 쓰는 인조대리석, 주방기기 사업 등을 함께 영위하고 있지만 매출 대부분은 사무가구 분야에서 나온다.

이처럼 최 전 회장이 한샘이펙스의 대주주가 돼 경영 전반에 나서면서 연

간 1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사무가구 시장 재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문경영인으로 25년간 한샘을 이끌면서 2조원대 회사로 키운 장본인인 최 전회장의 능력이나 경영 수완 등을 볼 때 동종업계에 있는 퍼시스 등 사무가구 전문회사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퍼시스가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퍼시스는 2018년 기준으로 315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사무가구 부문 '톱 3'로 불리는 현대리바트(1311억원), 코아스(1085억원)를 크게 앞지르는 수준이다. 이들 3개 사 중 점유율도 퍼시스가 56.9%로 압도적이다.

퍼시스는 퍼시스홀딩스가 31.72%로 대주주다. 2대 주주는 16.73%의 지분을 보유한 퍼시스 창업주 손동창 명예회장이다.

여기에 최 전 회장이 이끄는 한샘이펙스까지 본격 가세하게 됨에 따라 향후 사무가구 시장은 '4파전' 양상이 펼쳐질 전망이다. 아울러 업계에선 퍼시스 오너인 손 명예회장과 전문 경영인

출신인 최 전 회장의 경쟁도 관전 포인트로 보고 있다.

손 명예회장은 1983년 당시 한샘공업(현 퍼시스)을 창업, 사무가구 시장에 뛰어 들었다. 이후 회사명을 퍼시스로 바꾸고 현재는 퍼시스 뿐만 아니라 일룸, 시디즈 등의 브랜드도 두고 있다. 나이는 48년 생인 손 명예회장이 49년 생인 최 전 회장보다 한 살 더 많다.

한샘이펙스에는 최 전 회장의 장남 우혁씨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한샘 주식 3.31%(77만 9730주)도 보유하고 있다.

최 전 회장은 1979년 한샘에 입사한 이후 작년 말 퇴임할 때까지 25년간의 CEO 기간을 포함해 총 40년간 한샘에 재직했다. 최 전 회장이 보유한 한샘 지분은 조창걸 명예회장(15.45%)을 제외하고는 특수관계인 중에선 한샘드뷰연구재단(5.52%)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지난 3일 종가기준(7만1000원)으로 최 전 회장이 보유한 한샘 지분 가치만 554억원에 달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칼라 브롬버그 공익을 위한 AI 프로그램 리더가 화상연결을 통해 나우캐스트의 원리를 소개하고 있다. /구서윤 기자

5분만에 6시간 후 강수량 예측

구글, 기상예측 '나우캐스트' 공개
美 159개 관측소와 인공위성 활용

구글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5분만에 최대 6시간까지의 강수량 등 기상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 '나우캐스트(Nowcast)'를 공개했다. 기존에 존재하는 많은 기상 예측 모델 대비 예측 시간은 줄이고 정확성은 높였다. 나우캐스트는 구글이 AI를 활용해 홍수 예측, 멸종 위기 생물 보호, 기근 예방 등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익을 위한 AI' 프로젝트 중 하나다.

구글코리아는 4일 서울 강남구 구글 코리아 본사에서 AI 포럼을 열고 나우캐스트의 원리와 향후 방향성을 공유했다.

화상연결을 통해 발표를 진행한 칼라 브롬버그 공익을 위한 AI 프로그램 리더는 "나우캐스트는 AI와 머신러닝을 통해 강수량을 예측하며 1km 해상도 수준이고 1시간에서 3시간 이내에 일어난 변화를 보여준다"며 "기상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프로토타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1km 해상도란 특정 지역에 살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가로, 세로 1km 지역 내 기상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걸 뜻한다. 단기 예보 측면에서는 미국 해양대기청(NOAA)의 예측 모델인 'HRR

R' 보다 정확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구글은 기상 예측에 있어서 유넷이라고 불리는 신경망 구조를 이용한다. 나우캐스트는 미국 전역에 걸쳐 위치한 159개의 관측소를 통해, 강수량과 레이더 데이터 등을 측정해 기상을 예측한다. 이 과정에서 인공위성 데이터도 활용한다.

또한 미국 면적이 광범위한 만큼 미국 전역을 가로, 세로 각각 256km로 나눠 타일 조각 형태로 구분하는 방법을 택했다. 타일 단위로 기상 예측 과정을 거친 후 머신러닝에 이러한 복합데이터를 도입하는 과정이다. 나우캐스트를 통해선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60분 전, 30분 전, 60분 후 등의 기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상용화 계획은 미정이다. 브롬버그 리더는 "구글에선 현재 나우캐스트를 연구과제로만 삼고 있다"며 "당장 상용화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기상 정보는 홍수, 산불, 장마 등 여러 재난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고, 식량생산이나 의식주문제에도 영향을 준다"며 "앞으로 더 다양한 머신러닝 아키텍처를 이용하고 더 다양한 데이터 소스 접목해 현재 시간으로부터 1시간~3시간 이후 말고 더 긴 기간의 기상 예측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인력양성·수익창출 등 'AI 생태계' 만든다

AI양대 협회, 네트워킹 행사 등 마련
기업 해외진출, 스타트업 확대 나서

인공지능(AI) 협회들이 올해 AI 생태계 조성 및 AI 전문 인력 양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능정보산업협회·한국인공지능협회 등 AI 양대 협회는 올해 다양한 AI 네트워킹 행사를 마련해 AI 수요-공급 기업 매칭에 주력하고, 신규 회원사를 확대하는 등 AI 생태계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AI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신규 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기존 자격증 과정을 강화하고 있다.

AI 분야에서 스타트업 등 300여개 기업이 다양한 신기술을 개발했지만 아직 수익을 내는 유즈케이스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AI 협회들은 올해 수익모델 마련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또 AI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하고, 협회 차원의 수익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능정보산업협회는 올해 'AI 생태계 마련'을 목표로 정하고 수요-공급 기업 간 다양한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하고, 기업들의 해외 진출 통로도 마련하는 한편 스타트업 회원사 확대에 나선 계획이다. 산업계 협력 행사를 강화하기 위해 조찬포럼과 석찬네트워킹을 매달 개최하고, 자동차 분야의 수요 기업이 AI 테크 기업과 만날 수 있는 '자동차-AI 테크포럼' 등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오는 7월 1일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스마트테크 코리아'의 부대 행사로 'AI & 빅데이터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두산지주 AI&빅데이터 챌린지' 행사 등 AI 수요 발굴을 위한 챌



지난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회 국제인공지능대전'에서 한 관계자가 안면 인식 기술 기반의 기기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린지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국내 AI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세계적인 AI 연구소로 잘 알려진 캐나다 알버타주 AMII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글로벌 해외 지사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서울대 AI연구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과 협력을 통해 국제 행사도 추진하고 있다.

협회는 또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들이 회원사로 많이 가입돼 있지만 스타트업이 많지는 않은 만큼 올해는 스타트업 회원을 대거 확보하기 위해 신규 회원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AI 인력 육성을 위해 'AIoT 전략 전문가' 과정을 운영해 지난해까지 100명 이상을 교육했는데, 올해 최근 AI 사업이 가장 활발한 분야인 의료 AI 과정 수업을 추가하고, AI 트렌드와 비즈니스 전략 부분을 6시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청년인재 양성사업, 지방자치제와 연계해 '이노베이션 교육센터' 사업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한국인공지능협회는 올해 AI 수요-공급 매칭을 통한 AI 생태계 조성 및 AI 전문가 양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전통산업 등 AI를 신규로 도입하고자 하

는 수요 기업과 AI 공급기업이 만날 수 있는 '매칭데이' 행사를 대규모로 진행하고, 국내 최대 AI 전시회인 '2020 국제인공지능대전-AI 엑스포 코리아'를 오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또 경기장조경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센터의 판교 소재 '첨단기술기업 지원' 공간에 AI존을 구축했다.

협회는 지난해까지 '인공지능 산업 컨설턴트' 과정에서 150명의 컨설턴트를 배출한 데 이어 올해 추가로 '인공지능 창업지도사' 과정을 마련했다.

한국인공지능협회 관계자는 "기존에 창업자에 대한 멘토링을 진행하던 전문인력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 스타트업들이 AI 기술 기반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많아 AI 쪽으로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가 많았다"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지원센터와 공동으로 기존 창업 멘토링 인력뿐 아니라 50~60대 등 베이비부머 세대 등을 대상으로 교육해 신규로 AI 창업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인력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에 배출된 인공지능 산업 컨설턴트는 올해 협회에서 AI 수요-공급 매칭을 위한 전문인력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